

#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여성의 역할

## - 제3차 후속조사연구 -

김주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Women's Role in the Changing Rural Korea - The third follow-up survey -

Joo-Sook Kim

Dept. of Social Welfare, Hanshin University

#### 적 요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에 1차 현지조사하였던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의 8개 마을에 대한 3차후속조사이다. 조사대상은 8개마을의 각 가구의 성인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368명을 조사완료하였다.

1차조사를 실시한 '70년대 중엽은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그 속에서 여성의 농업생산, 가사 및 지역사회활동을 조사한 바 있다. '80년대의 개방농정하에서 상업농 중심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1987년에 2차조사를 수행했으며, 최근년의 WTO체제하의 농촌에서 여성들의 역할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2월에 3차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후속조사를 통해 한국농촌과 농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속에서 여성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며, 이에 수반하여 농촌여성들의 변화된 사회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농촌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대상농가의 가정생활조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는데 가전제품의 보급, 난방방법의 변화, 화장실 개선, 통신시설 보급등이다. 영농형태가 '70년대 중엽의 수도작 전문에서 오늘날에는 수도작외에 하우스농사등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사지역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농가비율이 감소하고 비농가구와 겸업농가가 증가하였다. 대상마을의 가구원 직업에서 비농부문 직종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적 접촉이 강화되고, 단체가입이 활발하며 사회적태도에서 현대적인 가치가 나타났다.

### 1. 서론

#### 1. 본 조사연구의 배경과 의의

본 조사연구는 한국농촌 여성역할 및 가족생활에 관한 1976년의 1차조사와 동일지역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후속연구이다. 동일지역에 대한 2차조사는 1987

년에 시행한바 있으므로 본 조사는 3차조사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의 8개마을이다.

1970년대 중반은 한국 농촌사회에서 수년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이에 대한 선전에 도취해있던 시기이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적인 것 같다. 새마을운동으로 한국농촌이 근대화되고 농업생산력도 증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가 하면, 한편으로는 '60년대 이후

공업화정책으로 피해해진 농촌에 대해 농민들의 자조·자립·협동의 구호아래 정부의 농업·농촌 경시정책을 은폐, 호도하려는 행정이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새마을운동은 한국농촌사회를 뒤흔든 커다란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50년대 후반의 지역사회개발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촌여성을 농촌사회의 무대에 등장시킨 역사적 계기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중반에 농촌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필자의 1976년의 1차조사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역할 증대뿐 아니라 새마을운동 참여같은 농촌지역사회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주시하여 여성역할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역할수행에 따르는 문제 및 여성의 역할-지위불일치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차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2차조사는 1987년에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후 개방농정의 정책기조하에 상업농·복합영농이 추진되었고, 이미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8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 농촌에서는 복합영농을 했던 농가에서 소파동, 고추파동 등 연쇄적인 농산물가격 폭락등으로 위기를 맞았고, 결과적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자살하는 농민이 속출하였다. 전국의 부동산 투기열기속에서 농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1차 조사시와 동일부락에 대해 농가경제 전반과 농업행태 및 가족생활과 여성역할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차조사결과 농촌여성의 대부분이 농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명제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sup>2)</sup>.

'90년대를 넘으면서 한국 농촌은 WTO하에 본격적인 변동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산물은 대대적으로 수입되고 농촌에서 노동력부족으로 농업기계화의 수준은 향상되었다. 한편으로는 농촌주민을 위해서도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등이 도입되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이 수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 2월 조사시점은 한국사회가 IMF사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여파로 농촌지역은 도시 실업인구의 귀농지로 관심을 끄는가 하면 농촌내부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농가부채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역사적으로 농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여성들의 역할이 다양하게 강조되었고, 여성역할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 상황은 바로 여성의 희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 때로는 그럴듯한 구호를 앞세우거나 현란한 정책구호로 치장하며 농촌사회의 변동이 진행될때 여성들은 이를 간파하지 못한채 과중한 노동과 역할수행에 허덕이다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커다란 희생이 뒤따름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지나간 농촌여성 연구의 주제들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3차 조사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도 바로 이점이다.

본 조사연구는 위와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농업특성을 지닌 몇 개 마을에 대해 10년간의 간격으로 후속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특성의 마을들에서 나타나는 농촌사회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그 속에서의 여성역할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일한 농촌마을에 관한 이와 같은 후속연구는 농촌사회변화의 사례조사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사자료가 축적되면 농촌사회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여성의 생활, 즉 역할과, 지위,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본 조사연구의 주요 내용인바, 지난 20여년간 현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한 농촌에서 일어난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의 역할변화 및 역할변화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 2. 1. 2차 조사연구의 문제설정과 조사결과

1976년 1차 조사시에는 농촌인구 및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농업생산참여 증가

현상, 새마을운동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 등 당시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농촌사회발전을 위한 여성들의 참여는 과연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 요인으로 시작된 행위가 결국 그들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2)농촌여성의 지역사회 발전의 참여는 너무 과중한 노동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발전에의 참여로 인해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은 합리적으로 대체 또는 해결되고 있는 것인가? (3)그리고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로서 여성들의 지위와 복지는 향상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원칙적 문제제기로 출발하여 1976년 1차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와 관련시켜 농촌여성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변하는 농촌경제를 위한 여성들의 생산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정도 (2)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식주의 소비생활을 위한 노동, 소비권과 가사권이 전통적 유형에서 변화하고 있는 측면 (3)지역사회의 조직적 활동이 생산 및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확대되는 지역공동사업에의 참여와 대외적 접촉의 실태 (4)확대되는 역할과 관련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태도와 전통적 역할의 중심이 되는 결혼·자녀·가족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의 변화.

위와같은 문제의식에 의한 조사결과 얻은 결론은,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가 현저히 높아졌고, 그러나 가족의 의·식생활을 위한 가사노동이 여전히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에 속하였음을 확인했다. 여성들이 농사일과 가사일외에 시민적 역할을 함으로서 그 역할이 다양해졌고, 의식과 태도면에서도 현대적인 사고로의 변화가 보였다. 조사결론으로 여성들이 농업생산의 보조역할 또는 잉여인력으로 인정되어 농업에 관한 기술 및 영농교육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지역사회조직활동을 민주적으로 해나가는 훈련, 시민교육 등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본 조사와 동일한 지역에서 1987년에 후속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바, 당시의 문제의식은 1차조

사연구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했다. 즉 1차조사시의 농촌여성 역할논의에서 농촌여성노동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사회구조적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촌여성의 지위를 여성농민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1976년의 1차조사 결과 농촌여성의 역할을 농업생산에의 참여, 가사담당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지역사회 활동 세가지로 규정한 바 있었는데, 그 점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라는 점을 지적한 의의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농업생산 측면에서의 여성노동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비판도 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의 농업생산증가는 농업생산단위였던 농가의 소농적 성격과 농업생산의 구조적 특성이 여성노동을 포함한 전가족노동력을 농업에 투입하게 된 필연적 결과였음이 더욱 선명히 설명되어야 했고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출이 전국적으로 농촌여성의 생산참여를 가시화해주는 계기가 되었음이 더욱 명확히 설명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더구나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참여는 직업상의 노동형태라는 점과, 새마을활동같은 지역사회활동은 선택적인 사회활동이라는 점이 1차조사시에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농촌여성의 세가지 역할론은 유효하지만, 농촌여성의 역할을 평면적으로 정의한 한계를 가졌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2차조사를 진행하였다.

1987년의 2차조사시에 여성농민의 역할분석을 위해 제기한 점은 첫째 농촌여성의 지위를 여성농민으로 규정하는 일이었다. 농촌여성을 분류하여 농가주부, 농사보조자, 농가경영자 혹은 전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부인으로 나누어 본다면 한국농촌의 생산구조와 인구구조로 볼 때 한국농촌 여성의 대부분은 여성농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댄 것이다. 둘째는 농촌여성의 생산역할과 재생산역할의 관련성문제이다. 즉 한국의 농촌여성에게 가사역할과 농업생산역할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가사역할과 농업생산역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농업생산의 특성상 가능하다는 점과, 동시에 바로 이 조건이 농촌여성의 생산역할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차조사시에 농촌여성의 역할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농업생산 강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개방농정을 근거로 제시한바 있다. '80년대 개방농정의 기본구조는 「80년대 새로운 농정방향의 모색」에서 밝혀져 있는 바 정부는 지속적 고도성장 과 이를 위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위해 국제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저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이 불가피하며 이때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농산물수입자유화를 한다. 이는 저농산물가격을 유지시킬 것이고 저임금의 기초라는 구상이었다. 농가경제 압박을 받는 농민은 이농을 통해 도시노동력으로 공급되기도 하며 또한 복합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증진 및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었다<sup>3)</sup>.

이러한 개방농정의 기본구조에서 농촌공업화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1987년의 필자의 2차후속조사에서는 개방농정하의 농촌여성역할 조사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때 여성의 농업생산노동의 결정변수로서 가구의 생산구조 즉 구체적인 변수로서 경작규모, 영농형태, 기계화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경작규모가 크고 수도작 전문농가의 경우 여성의 일은 적다. 그러나 규모에 상관없이 시설원예나 과수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노동은 많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세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여성의 농업생산노동의 양과 질이 결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결과도 가정했던대로 나타났다.

### 3. 본 연구의 문제설정과 연구내용

1998년 2월에 실시한 금번의 3차후속조사에서도 농촌여성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은 1·2차조사시와 기본적으로 같다. 즉 농촌여성중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고 여성농민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통적인 여성 역할은 아직도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도 형태는 여하하던지간에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농촌여성의 역할이란 농업경영의 형태, 농업기계화의 정도 내지 농가의 생활편의 정도등 농가가

가진 조건과 농촌주변의 농외취업기회의 증대 등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난 10여년간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농촌여성 역할의 전제조건을 검토해보자. 첫째 본격적인 WTO체제하에 농산물수입이 급증하여 농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농가의 대응으로 상업농이 더욱 강화되고, 한편으로 기계화의 진전이 괄목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농촌공업단지 조성, 교통수단의 발전등으로 농촌사회에 비농가구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농가 가구원중에도 비농취업이 증가했다. 셋째, 농촌가정의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농가의 교통·통신수단이 도시수준에 다다르게 된 점이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구조변화 양상들은 농촌의 가족생활, 경제생활 및 여성생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농촌여성의 역할과 태도변화를 야기시키는 변수가 된다.

여기서 농촌여성 역할의 변화양상을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업기계화의 확충, 본격적인 상업농으로 인한 농사작목의 축소 등은 농촌여성의 생산역할을 약화시킨다. 특히 수도작 여성의 경우에 여성역할의 약화가 예상된다.

둘째, 농공단지의 확장과 농촌교통의 편리 등은 농촌여성의 농외취업기회를 확대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더구나 농촌에서 현금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농취업을 선호하게 되며, 특히 직장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농촌가족에서 누군가 직장을 가지기를 선호한다. 셋째, 소가족·핵가족으로의 농촌가구의 변화, 생활기기의 편리 등으로 농촌가정에서 전반적으로 가사역할이 간편해지고 비중이 약해지며, 이는 여성의 가사역할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의 영향으로 농촌주민이 강제로 동원되는 역할은 감소할 것이고 오히려 생산·소비활동과 관련된 자발적인 사회적 역할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할의 변화는 여성의 태도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형성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1976년 1차조사와 1987년의 2차조사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



록 같은 항목을 포함하였고, 여기에 최근의 농촌의 사회문제를 참작하여 농촌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였다. 조사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가구원 분석-

동거가구원-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종교, 직업, 농사일 하는 정도

출타가구원-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학력, 출타이유, 본가의 보조금, 본가로의 송금액

응답자부부의 특성, 거주기간

2) 자녀-생존자녀수, 이상자녀수

3) 경제상황-가구의 소득원, 가구원의 경제활동 내용, 가구의 한달 수입

경작지 및 소유지, 임대지, 임차지, 경영형태, 자소작 형태

가구의 부채, 부인의 재산

4) 농업노동-응답자의 농사일(논, 밭, 과수, 기타)

가축사육,

고용노동, 피고용 노동, 품앗이

농업기계화 정도와 부인의 사용능력

남편과 농사일 비교

일년간의 가족원의 비농 노동

농사일의 증감에 대한 생각

5)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아픈 사람

6) 생활수준-주택개량 상태, 집의 소유 형태, 화장실의 형태, 난방방법, 부엌시설, 문화용품

7) 가사역할-가사분담, 명절의 음식준비, 가정관리, 가사결정권

8) 사회참여-부인과 남편의 사회단체 가입, 매스컴 접촉

9) 사회적 태도-혼인관, 성 통제, 복있는 여자, 딸희생문제, 여성의 직업에 대해, 농사일의 원하는 수입원, 응답자의 정제감, 노후대책

10) 농촌에 필요한 시설

4. 조사방법

가. 본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조사대상 마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응답자는 각 가구의 가구주 부인을 원칙으로 하였다.

가구조사 외에도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안성군청, 미양면, 미양농협 등의 협조를 받았다.

나. 조사원 및 조사기간: 조사원으로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조사는 1998년 2월 11일-14일, 2월 16-17일 및 2월 25일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마을내에 기숙하면서 시행하였다.

다. 자료처리: 조사완료된 조사표는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였고, 후에 에디팅, 코딩과정을 거쳐, 컴퓨터로 자료처리하였다.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라. 본 조사는 1차조사와의 단순비교를 일단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조사항목 설정이나 분석틀 측면에서 제한점이 많다.

II. 조사지역 변화 개관 및 응답가구의 성격

1. 조사지역 변화 개관

조사지역은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의 8개마을로서 보촌, 신고지, 진촌, 후평, 용두, 신기, 신계, 하개정이다. 필자가 실시한 1976년, 1987년 및 1998년의 세차례의 조사에 동일한 8개 마을을 조사하였다.

안성군 미양면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편은 안성시에서 버스를 이용한다. 미양면은 구릉지대로서 낙농과 과수 적지이고 미곡생산도 잘 되는 농촌이다. 면의 한편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본 조사대상 마을 중 두개 마을이 경부고속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1976년 1차조사 당시 미양면은 전국농업구조개선대상면으로 책정되어 야산개발, 한우증식, 과수 및 소채 단지, 농업기계화 등 전반적인 농업구조의 개선후보지역이었다. 그리고 1차조사 당시 조사대상 마을 중에는 새마을운동의 모범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고속도로 옆의 두 마을은 특별히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도색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었다.

1976년 1차조사시에는 조사대상 마을들 중 마을주

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공동취사를 하면서 공동모내기작업을 하는 곳이 있었다. 공동 모내기작업은 70년대 후반에 사라졌다. 그리고 1차조사시에는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구판장을 운영하는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차조사 이후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조사대상마을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일어났다. 연구기간중의 변화로 안성공업단지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안성공업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1978년 12월에 단지가 지정되어 조성되었고, 현재는 커다란 공업단지로서 인근의 농촌노동력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 1차조사 후에 조사대상마을인 용두리와 신기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설립되었다. 안성공업단지와 안성캠퍼스는 조사대상 지역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로서 '87년의 2차조사시에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1984년에 미양면 계록리가 농공단지 후보대상지로 선정되었고 1986년의 미양면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규모 3만평, 사업비 994백만원의 농축산가공업체 입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있고, 1987년 4월 2차조사 당시 필요한 농지를 매수하는 중이었다. 그후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음은 물론이다. 1998년 2월 조사당시에는 이곳 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응답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지역 주변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기도 했고, 최근에는 면내 중심지에 목욕시설을 갖춘 복지관

이 개관되어 있었다. 조사마을들의 외관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들이었는데 이는 신축한 주택이 많았고, 주요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이 좋아진 점 때문이었다.

## 2. 가구 구성

1998년 2월의 3차조사에서 면접이 완료된 가구수는 368가구이다. 1976년의 1차조사에서는 374가구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 1·2·3차 모두 대상마을의 전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출타로 인한 조사불능, 기타이유로 면접불능 등을 제외하고 조사기간 중에 조사가 가능한 가구는 모두 조사하도록 노력하였다.

### 가. 동거 가구원 수

본 조사에 응답한 368가구의 전체 동거 가구원 수는 1,335명으로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3.63명이다. 단독가구가 28가구(7.6%)이었고 가구원이 1-2명인 가구 비율이 31%에 달한다. 가구원이 3명-5명인 가구를 합하면 55.4%이다. 금번 조사에서 가구원이 가장 많은 경우가 9명으로서 9명 가구원을 가진 3가구가 있다.

1976년의 1차조사와 비교하면 1976년에는 단독가구는 하나에 불과했으며 11명이상을 가진 가구도 있었고 평균동거가구원수가 5.72명이었다. 결국 동일마을에서 비슷한 수의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가구원의 평균가구원수가 22년간에 평균 2.1명 정도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표 1. 대상마을의 조사완료된 가구수

마을 이름	조사완료 가구수(1988.2)	조사완료 가구수(1976.8)
보촌	52	64
신고지	19	25
진촌	74	80
후평	49	56
용두	71	66
신기	29	20
신계	39	35
하개정	35	28
합 계	368	374

나. 별거 가족원 수

368가구중 1명의 별거 가족원을 가진 가구는 92가구, 2명의 경우는 29가구, 3명의 경우가 8가구이었고 2가구에는 4명의 별거 가족원이 있었다. 그리하여 368가구중 별거 가족원의 전체수는 182명이다. 이를 별거 가족원이 있는 131가구의 평균 가족원으로 계산하면 1.38명이고 전체 응답가구로서는 0.5명의 별거 가족원을 가진 셈이다.

출타 가족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아들이 121명(이중 장남이 80명, 기타 아들이 41명)이고 딸이 22명, 기타 가족이 14명이었다.

3. 가족형태

현재 동거하고 있는 1335명에 대해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가구주 본인이 368명이고, 가구주 부인 299명, 가구주의 아버지(81명) 어머니(169명), 아들과 딸(258명), 손자, 손녀(81명), 며느리(40명)등이며 기타 가족원에 속하는 수는 21명이다. 즉 가구주 부부와 부모,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녀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동거가구원들이 가구주 직계중심의 구성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곧바로 가족형태로 나타난다.

로 가족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368 응답가구를 세대 구성으로 나누어 보면 1세대가구가 42가구이고, 2세대로 구성된 가구수는 216가구(59.3%)이다. 3세대 가구수는 106가구(28.7%)이고 2가구는 4세대 가구이었다. 이를 다시 가족형태로 나누어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수가 164로서 44.6%를 이룬다. 부부와 자녀에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 가구가 3가구 있다. 부부가 다 있지 않으면서도 2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수는 51가구이었다. 한편 부부와 자녀 및 양친으로 구성된 가구가 34(9.2%)이고 여기에 가구주의 형제까지 같이 사는 가구는 2가구가 있었다. 다른 구성형태로 3세대를 이루는 가구수는 70이었다.

응답가구의 가족형태를 1차조사와 비교하면 3차조사시에 1세대 가구가 급증했고 가구주의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눈에 띈다. 1976년에는 부부나 혼자 사는 응답가구수는 4가구로서 비율이 1.1%에 지나지 않았다. 1998년 조사에서 1세대 가구가 11.4%나 된다. 또한 1차조사시에는 부부+자녀+부모+형제 가구가 31가구나 되었으나 금년에는 같은 형태의 가구는 2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표 2. 동거가구원수(1998, 1976)

가구원수	년도	1998년도		1976년도	
		수	(%)	수	(%)
1 명		28	7.6	1	0.3
2		86	23.4	9	2.4
3		66	17.9	36	9.6
4		78	21.2	55	14.7
5		60	16.3	71	19.0
6		33	9.0	84	22.5
7		10	2.7	57	15.2
8		4	1.1	26	7.0
9		3	0.8	24	6.4
10				10	2.7
11				1	0.3
합계		368	100.0	374	
평균가구원수		3,633		5,72	

표 3. 응답자 가구의 가족형태

가구형태	년도	1998년도			1976년도		
		수	(%)	세대별%	수	(%)	세대별%
1세대 부부, 혼자		42	11.4	11.4	4	1.1	1.1
2세대 부부+자녀		164	44.6	59.3	226	60.4	65.8
부부+부모					2	0.5	
부부+자녀+형제		3	0.8		5	1.3	
기타 2세대		51	13.9		13	3.5	
3세대 부부+자녀+양친		34	9.2	28.7	82	21.9	31.8
부부+자녀+부모+형제		2	0.5		31	8.3	
기타 3세대		70	19.0		6	1.6	
4세대이상		2	0.5	0.5	5	1.3	1.3
합계		368	100.0	100.0	374	100.0	100.0

4. 응답자 부부의 특성

본 조사의 응답여성들은 각 가구의 가구주 부인이나 주를 이루며 가구주의 며느리인 경우도 있다. 그외는 남편이 없는 가구의 가구주 여성이 응답자인 경우이다.

368명의 응답여성들의 연령은 40대가 23.1%, 50대 20.9%, 60대 23.4% 등 40대-6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16%는 30대에 속한 반면, 응답자중 70세 이상도 10% 이상 되고 있다. 22년전인 1976년의 1차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가구주의 부인이거나 여성가 구주이었으나 응답여성의 대부분이 30대와 40대에 속했고 평균연령이 41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 응답여성들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농촌가구의 가구주 부부의 연령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단독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으며 고령의 독신여성이 본 조사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중 289명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들의 연령 분포가 응답여성 전체의 연령보다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연령이 높은 독신여성들이 응답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출신이 42.1%이고 중학교출신 18.5%, 고등학교 출신이 16.6%이었고 대학출신이 3.8%이며 대학원출신의 응답자도 1명 있었다. 무학이 6.5%이었고 학력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도 12.2%에 이르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무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금

번 조사에서 응답여성의 학력은 22년전인 1차조사시의 응답여성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76년 조사에서 응답자는 국졸이 78.9%이었고 중졸이 9.4%이었고 고졸이상이 1% 미만이었다.

응답자 남편의 교육수준의 향상도 확인된다. '76년 조사에서 남편들의 59.5%가 국교출신이고 중졸이 20.1%이었고 고졸이상이 16.6%이었던 점에 비해 금번 조사에서는 무학이나 미상이 2.8%, 4.8%이었고 초등학교출신이 22.5%, 중졸이 28.0%이고, 고졸이 31.8%이고 대학출신 비율도 9.0%이며 대학원이 1.0%로 조사되었다.

응답여성의 직업을 정확히 구분해보기 위해서 직업을 농업, 농업+비농업 혹은 비농업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조사하였고 동시에 농사일하는 정도를 물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 368명의 응답여성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여성은 175명(47.6%)이었고 23명(6.3%)은 농사일과 비농부문 취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으며 48명(13.0%)의 여성들은 비농업부문의 취업자이었다. 응답여성 중 무직비율은 1/3인 33.1%로 나타났다.

응답여성에게 농사일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일이 있을때마다 한다는 여성이 177명(48.1%)이고, 때때로 한다는 30명(8.2%)이었고, 농사일을 거의 안한다는 응답자가 146명(39.7%), 미상이 15명(4.1%)이었던 점과 연결지어 볼 때 금번 조사의 응답여성 중 절반이

넘는 54% 내지 56% 정도가 농업종사자이거나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며 나머지 응답여성들은 농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1차조사시의 응답여성의 83.4%가 농업직업을 가졌으며 무직은 7.8%에 지나지 않았던 점과 크게 대조된다. 조사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와 관련있을 것이며 금번조사에서는 응답여성 중 연령이 높아 농사일을 할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여성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본 조사의 응답여성 중 전적으로 비농취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농사일과 병행하며 비농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71명(응답여성중 19.3%)인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 조사지역 인근의 공업단지의 생산직에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양한 직종이 조사되었다. 71명 중 교사 혹은 기타 전문직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5명(7.0%)이었고, 사무직으로 취업한 응답여성은 7명(9.8%)이다. 상업등 자영업을 하는 여성은 8명(11.3%),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여성은 2명이다. 그외 건축업, 제조업, 공장직원 등은 사실상 생산직으로 볼 수 있고 회사원이라는 응답도 현치 사정상 생산직에 포함시킨다면 71명중 37명이 생산직 종사자라고 분류될 수 있다. 물론 기타 혹은 미상의 경우인 12명까지 생산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농외취업자의 약 70%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며 이 숫자는 전체 응답여성 368명중 13.3%가 농외취업자임을 나타낸다. 1차조사시에 374명의 응답여성중 교사 1명, 상업10

표 4. 응답자 부부의 연령과 학력

년도		1998년도				1976년도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수	%	수	%	수	%	수	%
연령	24세이하	2	0.5			10	2.67	1	0.29
	25-29	16	4.3	6	2.1	33	8.82	13	3.79
	30-34	34	9.2	19	6.6	44	11.76	26	7.58
	35-39	25	6.8	23	8.0	76	20.32	59	17.20
	40-44	47	12.8	33	11.4	74	19.79	79	23.03
	45-49	38	10.3	47	16.3	66	17.65	63	18.37
	50-54	27	7.3	27	9.3	33	8.82	41	11.95
	55-59	50	13.6	28	9.7	24	6.42	34	9.91
	60-64	44	12.0	33	11.4	14(60세이상)	3.74	27	7.87
	65-69	42	11.4	38	13.1	-----			
	70-74	22	6.0	14	4.8				
	75-79	13	3.5	14	4.8				
	80세이상	5	1.4	5	1.7				
	무응답	3	0.8	2	0.7				
학력	무학	24	6.5	8	2.8	35	9.36	13	3.79
	초졸이하	155	42.1	65	22.5	295	78.87	204	59.47
	중졸이하	68	18.5	81	28.0	35	9.36	69	20.12
	고졸이하	61	16.6	92	31.8	2	0.53	57	16.62
	대졸이하	14	3.8	26	9.0				
	대학원이상	1	0.3	3	1.0				
	무응답	45	12.2	14	4.8	7	1.87	--	--
합계		368	100.0	289	100.0	374	100.00	343	100.00

표 5. 응답자부부의 직업

구분	응답자		응답자 남편	
	수	(%)	수	(%)
농업	175	47.6	166	57.4
농업+비농업	23	6.3	30	10.4
비농업	48	13.0	69	23.9
무직	122	33.1	24	8.3
합계	368	100.0	289	100.0

명, 기타직업 종사자 3명이었던 점과 커다란 차이를 보게 된다.

응답자 남편 289명을 분석해보면 농업에만 종사하는 자는 166명(57.4%)이었고 남편중 10.4%는 농업+비농업 종사자이며 69명(23.9%)는 비농부문에 취업해 있으며 8.3%는 무직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남편들중에 비농업취업자와 농업+비농취업자를 합한 비율이 응답자남편의 34.3%(99명)에 이른다. 이들 99명의 직업내용을 보면 전문직 14명(14.1%), 사무직 6명(6.1%)이며 자영업이 14명, 서비스업이 14명, 운송업이 13명(13.1%)이며 공장직원 5명(5.1%)이다. 회사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지 사정상 생산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11명(11.1%)이다. '76년 1차조사시에 응답자남편 343명중 공무원·교사, 사무원을 합한 수가 16명이고 상업종사자 6명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남편들의 비농부문 취업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III. 경제활동과 여성역할

#### 1. 가구원의 소득원

응답가구의 소득원을 알기 위해 가족원들의 수입원을 모두 물어보았고 그 결과를 농사, 직장, 상업, 자영업·사업, 기타등으로 나누어 소득원을 조사하였다. 가구의 소득원이 농사라는 경우가 164가구(44.6%)이었고, 가구소득을 농사와 직장생활 모두에서 얻는 가구가 108가구(29.3%), 직장에서만 소득이 있는 가구는 59가구(16.0%), 상업이 6가구(1.6%), 자영업의 경우가 13가구(3.5%)이었고 18가구(4.9%)는

소득원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이었다. 가구원의 소득원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응답가구 중 44.6%는 전업농이고 겸업농가 비율은 29.3%이며 나머지 26.1%는 비농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했던 1976년의 1차조사시에 응답농가의 대부분이 농가였으며, 1987년의 2차조사 결과에서는 전업농이 66.5%, 겸업농이 22.6%였으며 비농가구가 5.6%로 나타났던 점과 비교하면 조사대상 마을 가구들의 성격이 전업농의 감소와 겸업농 및 비농가의 증가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가구의 가족전체의 한달 수입을 현금소득과 농업소득액 및 기타 소득액으로 나누어 조사했으나 정확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농업생산 구조

##### 가. 농업경영 형태

본 조사에서 응답가구중 237가구(64.4%)는 농업경영을 하는 가구이었다. 그리고 131가구(35.6%)는 농업경영이 없는 가구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농업경영이 전혀 없는 가구비율이 1/3을 상회한다는 것은 조사대상마을들의 경제생활 전반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237가구들의 농업경영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작만을 하고 있는 가구는 102가구(43.0%)이고, 수도작과 과수를 겸하는 가구가 56(23.6%)이었으며, 수도작과 시설농업을 겸하는 17가구(7.2%), 수도작과 축산을 겸하는 11가구(4.6%)이다. 수도작+시설+축산 혹은 수도작+축산+과수, 혹은 수도작+시설+축산+과수 등으로 세 종류 이상의 복

표 6. 응답가구의 농업경영 형태

구분		가구수	%
농업경영 유무	농업경영없음	131	35.6
	농업경영 함	237	64.4
합계		368	100.0
농업 경영 형태	수도작전문	102	43.0
	수도작+시설	17	7.2
	수도작+과수	56	23.6
	수도작+축산	11	4.6
	수도작+시설+축산	2	0.8
	수도작+축산+과수	10	4.2
	수도작+시설+축산+과수	1	0.4
	시설전문	11	4.6
	과수전문	18	7.6
	축산전문	7	3.0
	기타	2	0.8
	합계	237	99.8

합적인 영농을 하는 가구수는 13가구이었다. 한편 과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18가구(7.6)이었고 시설전문가구는 11가구, 축산전문가구수는 7(3.0%)이었다.

1976년 1차조사시 조사대상마을을 선정할 때 과수원이 많은 마을, 축산을 시도하는 마을,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마을 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바 있으며 금번 조사시에도 동일한 마을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과수전문 농가나 시설전문농가의 비율이 높다고 보겠다.

#### 나. 경작지 및 소유지

응답한 368가구의 경작지 규모를 논,밭, 과수, 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논에 경우에 응답가구 중 논 경작지가 없는 가구가 159가구(43.2%)에 이르렀다. 논을 경작하는 가구는 209가구이었는데 이중 경작규모를 밝히지 않은 1가구가 있다. 209가구중 1,500평미만을 경작하는 가구는 53가구(26.4%)이었고 1,500평-3,000평을 경작하는 가구수는 60가구(28.7%)이며, 3,000평-6,000평 범위가 68가구(32.5%)이다. 6,000평이상 논을 경작한다는 가구는 27가구(12.9%)이었다.

밭을 경작하지 않는 가구는 276가구(75.0%)에 이르며 밭을 경작하는 92가구중 85%에 해당하는 79가구가 1,500평미만의 밭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원의 경우는 조사대상마을들중에서 주로 두 개 마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수원경작을 전혀 안하는 가구가 86.4%이다.

응답가구의 논, 밭, 과수원 혹은 임야의 소유정도를 종합한 결과는 어느 토지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가구가 137가구(37.2%)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167가구(45.3%)로 나타났고, 밭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286가구(77.7%), 과수원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318가구(86.4%)이다. 임야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수는 354가구(96.2%)이다.

응답가구의 임대차관계를 알아보았다. 368가구 중에서 소유한 농토를 남에게 임대해준 경우는 논에 경우 31가구가 있었고, 밭은 8가구가 임대해 주었고, 과수의 경우는 3가구가 있다. 이들의 임대지 면적은 1,500평미만에서 9,000평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임차지 상황을 보면, 응답가구 중 논을 임차했다는 가구수는 56가구, 밭을 임차한 가구는 13가구,



표 7. 경작지, 소유지, 임대차지 규모

(가구수)

구분	평수	경작지				소유지				임대지				임차지			
		논	밭	과수	임야	논	밭	과수	임야	논	밭	과수	임야	논	밭	과수	임야
없음		159	276	318	355	167	286	318	354	337	360	365	333	312	355	362	367
1500평미만		53	79	23	5	62	69	24	6	12	4		13	22	11	1	1
1500-3000미만		60	5	8	1	63	7	11	1	6	3	1	8	16	1	1	
3000-4500미만		38	4	7	2	40	4	6	2	3	1	1	4	9		1	
4500-6000미만		30		2	1	15		2	1	2		1	4	4		3	
6000-7500미만		14	1	3	1	12		2	1	5			5	1	1		
7500-9000미만		3	1	3		3		2						1			
9000이상		10	2	4	3	6	2	3	3	3			1	3			
무응답		1															
합계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과수원을 임차한 경우는 6가구가 있었다. 임차농지의 규모도 1,500평 미만에서 9,000평 이상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 3. 농업생산노동과 여성

응답한 여성이 지난 1년간 한 농사일을 알기 위하여 벼농사, 밭농사, 하우스 일, 과수, 축산, 기타 등의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벼농사를 위해 1년간 한 일을 보면, 가장 많이 한 일은 못자리로서 응답자의 37.2%가 못자리일을 했다고 했다. 응답자들이 못자리 외에 벼농사에 많이 한 일로는 육모상자 정리(35.3%), 씨뿌리기(35.3%), 육모상자 운반 및 안치(34.2%), 못자리 관리(26.1%) 등의 순서이다. 그 다음으로는 농약살포(23.9%), 기계모를 심고 난 후의 보식(21.5%), 그리고 논물 관리(17.1%)이다. 이들 농사작업들은 주로 벼농사의 초기의 초기 작업과정으로 손이 많이 요구되는 과정이거나 남편과 더불어 같이 해야 하는 작업들이다. 농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비율은 2.7%로 가장 낮다.

최근의 벼농사 작업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벼베기나 탈곡 전후의 운반과정을 여성들이 하는 일이 낮다. 힘이 드는 건조과정에서 일하는 비율도 물론 낮다. 그리고 품사는 일을 하는 비율도

9.0%로 낮았는데 이는 기계화되어 품을 사야 하는 일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금번 응답여성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농사일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추정된다.

응답여성들이 밭농사 및 하우스농사에서 하는 일은 다양하다. 응답자들이 밭이나 하우스에서 많이 하는 일의 순서로는 김매기(23.1%), 수확(22.8%), 순치기(18.5%), 파종(17.7%), 상품선별(15.2%), 상품포장(13.3%)등으로서 이런 일들은 섬세한 작업과정을 필요로 하며 여성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 다음으로 농약치기, 비료주기, 하우스 설치, 하우스 관리 등의 순인데 이런 일들은 힘이 많이 들거나 남편과 동시에 하게 되는 일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과수의 경우에는 어린 과일을 솎는 일, 상품을 선별하는 일, 과일에 봉지 씌우는 일, 상품포장 하는 일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과일나무를 정식하거나 전지하는 일, 나무에 황치는 일, 비료주는 일등은 여성이 일하는 비율이 약간 낮았다.

본 조사의 경우 축산농가가 적기 때문에 축산에서의 여성참여율도 낮게 나타났다. 축사청소를 하거나, 사료주기, 사료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 쪼갯기나 목욕시키기를 하는 응답여성도 있으며, 동물구입(7명)이나 동물판매를 한다는 여성(4명)도 있었다.

표 8. 응답여성의 농사일 하는 정도

(%)

구분	농사일 내용																
	육묘상 자정리	벼베 기	벼뚫 기	건조	탈곡전 운반	탈곡후 운반	품사는 일	농기계 이용	농기계 이용	못자리 관리	육묘상 자운반 및안치	씨뿌 리기	못자 리관 리	보 식	비료 주기	농약 살포	논물 관리
벼농사 했다(%)	35.3	9.0	5.7	6.5	5.7	7.6	9.0	2.7	2.7	37.2	34.2	35.3	26.1	21.5	19.0	23.9	17.1
밭농사, 하우스일 했다(%)	하우스 설치	상품 선별	상품 포장	품사 기	파종	정식	하우스 관리	비료 주기	비료 주기	농약 치기	김매기	순치 기	수확				
과수 했다(%)	과수 정식	상품 포장	저장 관리	품사 기	전지꺾 짜기	황치기	농약뿌 리기	비료 주기	비료 주기	숙기	봉지씨 우기	수확	상품 선별				
축산 했다(%)	동물 구입	사료 준비	사료 주기	축사 청소		목욕시 키기	동물 판매	품사기	품사기								

### N. 가정생활의 변화와 여성 역할

#### 1. 생활수준의 향상

##### 가. 주거환경의 변화

응답가구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집을 지었거나 부분적으로 고친 적이 있는가를 조사해본 결과, 주택을 신축했다는 가구가 41.0%나 된다. 변소만 개량한 경우는 21.2%이다. 부엌을 개량한 가구는 31.5%, 보일러를 개량한 가구는 30.7%이었고 거실을 새로이 확보한 가구는 23.9%나 된다. 이에 비해 담개량, 창고개량, 축사개량을 한 가구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농업생산과 관련한 공간의 확보에 치중했기 보다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가옥을 신축하거나 가옥내부를 고치는 일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여하튼 신축한 가옥의 외모로 조사대상마을들의 모습이 10년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참고로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자가가 88.0%이고 전세를 살고 있다는 가구는 5.7%이었다. 월세를 사는 가구는 9가구(2.4%)이고 기타 남의 집을 공짜로 사는 경우등이 2.7%이다. 가옥의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는 가구도 4가구 있었다.

응답한 가정의 가옥내부 중에서 화장실의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응답가구의 63.9%에 옥내 수세식 변소를 가지고 있었고, 옥외 수세식도 4가구가 있었다. 재래식 화장실을 가진 가구는 9.8%이었고 24.7%는 옥외에 개량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1차조사시에 응답가구중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으며 1987년 2차조사시에도 극히 소수의 가구에만 수세식화장실이 있었다. 1998년 2월의 본 조사시에 나타난 화장실 형태의 변화는 농촌가옥의 결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의 난방방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보였다. 금번 조사에서 응답가구의 90.8%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고 1가구는 프로판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22(6.0%)이었고 장작을 사용하는 경우도 4가구 있었다.

##### 나. 부엌시설과 문화용품

부엌시설면에서도 커다란 향상이 있다. 응답가구의 98.4%에서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취사를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비율이 97.8%이다. 92.9%의 가구에서 세탁기를 가지고 있다. 부엌에 상·하수도를 갖추고 있는 가구가 70-80%대이다. 전자렌지를 가진 가

표 9. 지난 10년간의 주거상황 변화

구분	가구수	%
주택신축	151	41.0
변소개량	78	21.2
부엌개량	116	31.5
담개량	23	6.3
창고개량	8	2.2
축사개량	6	1.6
거실확보	88	23.9
보일러개량	113	30.7

표 10. 화장실의 형태

구분	가구수	%
채래식	36	9.8
옥외개량식	91	24.7
옥외수세식	4	1.1
옥내수세식	235	63.9
기타	2	0.5
합계	368	100.0

표 11. 부엌시설과 살림소유

구분	가구수	%
부엌상수도	268	72.8
부엌하수도	308	83.7
갖추어진조리대	288	78.3
가스사용	360	97.8
냉장고	362	98.4
전자렌지	200	54.5
세탁기	342	92.9

구도 절반이상(54.5%)이었다. 1976년의 1차조사 결과는 부엌에 조리대가 있는 가구비율이 28.3%이었고 부엌에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비율이 11.2%이었을 뿐이다. 응답가구의 45.7%가 석유곤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촌에서 프로판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였다. 1987년의 2차조사시에도 세탁기를 소유한 가구가 많지 않았고 탈수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았을 뿐이다. 금번 조사결과로 조사대상마을의 가구들에서 가정생활방법이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서 입식으로 진행되고 가사수행도 획기적으로

편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위 문화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제품들의 소유실태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4가구를 제외한 응답자가구 전체가 컬러 TV를 가지고 있다. 전화를 가진 가구비율도 95.4%이다. Fax를 가진 가구는 14가구로서 이장덕과 그외 몇가구가 더 있었다. 비디오를 가진 가구비율은 61.7%이었고 전축의 경우는 59.5%의 가구에 있었다. 노래방기계를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가구도 29가구나 있었다. 응답가구들간에 빈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

표 12. 소유하고 있는 문화용품

구분	가구수	%
라디오	252	68.5
오토바이	112	30.4
승용차	163	44.3
노래방기계	29	7.9
컴퓨터	69	18.8
무비카메라	6	1.6
전축	219	59.5
컬러TV	364	98.9
비디오	227	61.7
녹음기	154	41.8
선풍기	353	95.9
에어컨	31	8.4
전화	351	95.4
FAX	14	3.8

표 13. 가사역할 담당자

구분	부인이 주로	남편과 거의같이	남편이 주로	계	응답자수
밥짓기, 반찬준비	97.1	2.2	0.6	100.0	315
설거지	96.8	2.5	0.6	100.0	314
시장봐오기	92.5	5.5	1.9	99.9	308
빨래	96.8	2.2	1.0	100.0	314
다림질	96.8	2.5	0.6	99.9	315
방청소 및 정돈	94.6	3.5	1.9	100.0	312
난방관리	39.4	18.5	42.1	100.0	297
세금납부등	36.1	14.9	49.0	100.0	296

지 않는 한 컬러 텔레비전과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풍기 정도는 거의 모든 가구가 가지고 있다. 에어컨을 가진 가구도 31가구(8.4%)이다. 컴퓨터를 가진 가구는 18.8%이다.

응답가구에서 오토바이를 가진 가구가 112가구(30.4%)이었고 승용차를 가진 가구는 이보다 많은 163가구(44.3%)나 되었다.

## 2. 가사역할 담당

가족내의 가사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1)밥짓기와 반찬준비, 설거지, 시장봐오기등 식사준비와 관련

한 항목 (2)빨래와 다림질같은 의복에 관련한 항목 (3)방청소 및 정돈 (4)난방관리 문제 (5)세금납부등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부부중 누가 주로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밥짓기, 반찬준비나 설거지, 빨래나 다림질등은 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96-97%에 이른다. 시장봐오기나 방청소 및 정돈 등도 주로 부인이 하지만 앞의 역할에서보다는 남편의 참여가 약간 높다. 그러나 난방관리나 세금납부 등에서는 남편이 주로 하는 비율이 부인이 주로 하는 비율보다 높다. 남편과 부인이 같이 한다는 비율도 다른 역할에서 보다 높다. 난방관리는 앞의 주거상황면에서 밝혀진바

와 같이 과거와는 다르게 보일러 시설로 대폭 바뀌어져 있는데 보일러관리는 기름을 넣는 문제나 보일러를 가동하는 문제등 대외적이거나 약간의 상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76년의 1차조사시 의식주 생활담당자 조사에서는 주부 혼자서 하는 것 외에 주부+기타가족이 하는 비율이 꽤 높았다. 즉 집안의 시어머니나 형제들이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조사에서 단독가구나 핵가족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타가족이 가사담당을 해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생활이 편리해진 대신 가사를 나누어 담당할 손이 농촌가구내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 3. 가정관리 및 가사결정권

#### 가. 소비

농촌가정에서 살림살이에 쓰는 돈은 부부중 누가 가지고 쓸까? 이 점은 사소한 문제같지만 실제로 농촌가정에서 살림살이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역할관계 및 역할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 조사에서는 해당 응답가정의 40.6%는 가정살림에 쓰는 돈을 남편이 전적으로 쥐고 쓴다고 응답했다. 대개 남편이 쥐고 쓴다는 응답이 5.8%이므로 양자를 합하면 46.4%는 남편이 살림살이를 관장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전부 부인이 쥐고 쓴다는 응답은 23.9%이고 대개 부인이 쥐고 쓴다는 대답도 23.9%인데 양자를 합하면 47.8%이다. 시부모등 기타가족이 쥐고 쓴다는 응답은 5.8%였다. 1976년의 1차조사에서 집안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남편이 전적으로 쥐고

쓴다는 응답이 12.3%였고 대개 남편이 쥐고 쓴다는 응답은 23.6%였던 점과 비교하면 금번 조사에서 보기도 낮다. 그리고 1차조사에서는 시부모가 쥐고 쓰는 비율이 8.9%로서 금번 조사시보다 높다.

금번 조사에서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남편이 전적으로 쥐고 쓴다는 비율이 20여년전보다 높게 나온 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농촌에서 오늘날 농사를 위해서 현금 지불이 많고 자녀의 교육비 지불이 많으며 오히려 일상의 생활비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큰 지출을 남편이 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나. 가사결정권

집안에서 해야 하는 여러 측면의 결정이 부부중 누구에 의해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는 문제나 큰 살림을 구입하는 문제 등은 부부 둘이 같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집수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부가 같이 결정하지만(70.0%), 남편혼자 결정한다는(23.7%) 비율이 앞의 항목들보다는 높다.

농사일과 관련되면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50%대로 낮아지고 남편 혼자 결정한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농사와 관련해서도 농기계를 구입하는 일에서 남편 혼자 결정한다는 비율이 43.1%로 높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사와 관련한 어떠한 일이라도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부모를 포함한 기타가족의 가사결정권이 낮다는 점이다. 물론 본 조사 가구에서 부모를 모신 가구가 적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어쨌든 1976년의 1차조사에서 용자나 빚얻을 때

표 14. 살림살이에 쓰는 돈은 누가 쥐고 쓰는가?

구분	가구수	%
남편이 전적으로 쥐고 쓴다	119	40.6
대개 남편이 쥐고 쓴다	17	5.8
대개부인이 쥐고 쓴다	70	23.9
전부 부인이 쥐고 쓴다	70	23.9
기타가족이 쥐고 쓴다	17	5.8
합계	293	100.0

표 15. 가사결정권

구분	남편혼자	부인혼자	둘이같이	기타	계	응답자수
몇남몇녀를 낳을까	6.7	5.3	72.9	15.1	100.0	284
자녀들 진학및교육	9.9	6.4	81.2	2.5	100.0	282
큰살림구입	10.3	12.4	75.9	1.4	100.0	291
집수리	23.7	3.9	70.0	2.4	100.0	283
작물선택	31.8	5.1	59.4	3.7	100.0	217
논밭매매	35.0	3.4	56.7	4.9	100.0	203
농기계구입	43.1	1.5	50.0	5.4	100.0	204
상인과의 계약	40.4	3.0	50.7	5.9	100.0	203
노동력고용	35.0	6.5	53.0	5.5	100.0	200
농업소득사용	34.8	5.3	55.9	4.0	100.0	227

표 16. 정기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유무

구분	가구수	%
아무것도 없다	237	64.3
신문 + 잡지	88	23.9
신문	42	11.4
잡지	4	0.3
합계	368	99.9

남편이 혼자 결정한다는 응답이 47.7%이었고 이를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30.1%이었으며, 농작물(부업)종류를 결정할 때 남편 혼자 결정이 59.1%이었고 이를 부부가 같이 한다는 응답이 18.5%이었던 점과 비교한다면 농사와 관련한 비슷한 항목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 V. 지역사회 생활과 사회적 태도

### 1. 여성의 사회적 접촉

#### 가. 매스컴 접촉:

본 조사 응답가구 중 64.3%에 해당하는 237가구에 사는 정기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가 하나도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88가구(23.9%)는 신문과 잡지를 정기구독한다고 하였으며 신문만 정기구독하는 가구수는 42가구(11.4%)이다. 잡지만 정기구독한다는 경우도 4가구 있었다. 응답가구 중 약 35%는 신문을 정

기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서울에서 발행하는 중앙의 일간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는 47가구이었고 농민신문을 정기구독하는 가구수도 42가 있었다.

#### 나. 외출 및 사회적 접촉:

응답자들의 외출정도나 사회적 접촉을 알아보기 위해서 종교적 일, 학부모 역할, 주부의 역할로서 시장에 가는 일, 면사무소등 관청이나 은행에 출입하는 정도, 마을내 회의에의 참석정도, 그리고 점이나 푸닥거리, 사주 관상 등의 일로 얼마나 자주 모임이나 그런 장소에 참석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위의 여러 가지 일중에서 응답자들은 안성이나 큰 시장에 외출하는 일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2.3%만이 한달에 한 번도 안성읍이나 큰 시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한달에 한 번 이상 심지어는 한 달내내 매일 나간다고 대답했다. 이 응답에는 출근하

기 때문에 안성에 간다는 대답도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응답여성들의 외출빈도가 많은 경우는 교회, 성당, 절등 종교적 모임이다. 위의 종교모임에 전혀 안다닌다는 응답비율은 35.9%이었다. 나머지 64.1%는 한달에 한 번(25.8%) 참석하거나 두세번 참석(7.3%)하거나, 네 번(19.8%)참석한다고 응답했다. 한달에 다섯 번 이상 참석한다는 응답도 11.3%나 된다. '76년의 1차조사시에 교회나 성당 출석을 조사하였을 때 안다닌다는 응답비율이 85.8%였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물론 '76년 조사에서는 절을 제외했었기 때문에 곧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지난 이십여년동안에 조사지역내와 가까운 마을에 교회가 새로이 생긴 지역사정을 고려해볼 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이 이해된다.

응답자들의 학교 자모회 모임에의 참석율은 낮다. 응답자의 85.1%가 전혀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차조사시의 불참율보다 월등 높은 비율이다. 이는 응답여성들의 연령이 높아서 학생이 없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가 면사무소나 관청에 출입하는 정도를 보면, 전혀 출입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70.1%로 높다. 그러나 동 비율은 '76년의 면사무소나 우체국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78.6%에 비해서는 낮다. 한편 농협사무소나 은행에 출입하는 빈도는 관청출입회수보다 많다. 응답자의 48.6%가 한달에 한 번도 은행이나 농협사무소에 출입하지 않으며 응답자의 약 30%는 한달에 1-2회는 은행이나 농협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서너번 출입한다는 응답자도 13.1%이다. 응답자중에서 은행이나 농협사무소에 열번이상 출입하는 여성도 14명이나 되고 있다.

응답자의 마을회이나 마을총회에의 참석율도 높다. 응답여성의 38.6%만이 일년에 한 번도 위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의 14.1%는 일년에 한 번 마을회이나 마을총회에 참석한다. 두 번 참석한다는 응답비율은 21.7%이었다.

## 2. 가입단체

오늘날 농촌여성들은 어떠한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것일까? 농촌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는 부녀회이다. 금번 본조사의 응답여성 중 62%가 부녀회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는데 응답여성 중에는 고령층의 여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젊은 층의 대부분이 마을의 부녀회에 가입해 있을것이라고 추정된다. '76년의 1차조사시에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이었으므로 전국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에 여성들이 열심히 참여하였다. 오늘날에는 농촌의 부녀회조직이 형식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녀회 참여율은 높다.

농촌여성들이 부녀회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는 조직은 친목계이었다. 응답여성중 거의 절반이 친목계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농촌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동창회이었고 네번째는 동갑계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상조계이었다. 이들 단체들은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들이다. 한편 농업생산과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한 여성수는 극히 적다. 응답여성중 18명이 농협조합원이었는데 이는 여성 본인이 영농을 하는 가구주의 자격으로서 농협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후 복수조합원제도로 응답여성이 농협조합원이 되었을 수도 있다.

농사일과 관련하여 조직되는 영농회, 기계화단 및 작목반에 가입했다는 여성은 단지 두명씩이었다. 재산계에 가입했다는 여성도 두명뿐이었다.

응답자 남편들은 친목성격의 단체와 농사와 관련된 단체 등에 전반적으로 가입한 비율이 높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는 친목계로서 응답자 남편의 71.3%가 가입하고 있다. 응답여성들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가 친목단체였던 점을 고려할 때 농촌주민들에게 친목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활동인 점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가입했다는 단체는 농협조합원으로 63.7%이었다. 그다음은 동창회(57.1%)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영농회(49.8%)와 상조계(37.0%)의 순이었다.

응답자 남편들의 가입단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목계나 동창회등 순수한 친목성격의 단체가 있고, 농협, 영농회, 작목반이나 기계화단 등 농업생활활동과 관련된 단체가 있다. 한편으로는 상조계나 동갑계



표 17 응답자 부부의 단체 가입율

구분	부인		남편	
	수	(%)	수	(%)
부녀회	228	62.0	--	--
상조계	41	11.1	107	37.0
재산계	2	0.5	1	0.3
영농회	2	0.5	144	49.8
기계화단	2	0.5	40	13.8
작목반	2	0.5	77	26.6
농협조합원	18	4.9	184	63.7
정당	1	0.3	5	1.7
동창회	87	23.6	165	57.1
동갑계	44	12.0	56	19.4
친목계	182	49.5	206	71.3
응답자수	368	--	289	--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는 친목의 목적보다는 부모의 상(喪)을 위해서 혹은 본인과 자녀들의 혼인이나 회갑등 소위 관혼상제를 위한 모임이라고 판단된다.

재산계에 든 경우는 응답여성 중에 2명이 있었고 남편중에는 한명만이 재산계에 가입했다. 농촌에서 재산계의 비중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당가입자도 극히 적은 숫자이었다.

### 3. 사회적 태도

농촌여성들의 사회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1976년 1차조사시와 동일한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다. 즉 결혼관, 복있는 여자상, 여자의 직업에 대한 태도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 딸의 희생문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노후대책등 몇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여자는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4%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20.9%는 결혼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을 하였다. 즉 응답여성의 절반이상이 여성의 혼인에 대해 하는 것이 좋다는 대답을 했다.

한편 결혼안해도 상관없다는 대답이 32.9%로서 응

답여성의 1/3에 육박한다. 안하는게 좋다는 대답은 6.5%이었다. '76년의 1차조사시에는 여자는 결혼을 꼭 해야한다는 응답이 54.8%이었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22.5%이었으며, 안해도 좋다가 10.0%, 안할수록 좋다가 3.5%이었던 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금번조사의 경우 여자의 혼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여자의 복(福)에 대한 생각에서는 가정이 화목한 여자를 응답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어떤 여자가 복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70.4%가 가정이 화목한 여자라고 응답하고 있다. '76년의 1차조사시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가정이 화목한 여자를 복있는 여자라고 한 대답이 43.3%이었고 자녀성공을 21.4%가 지적했고 경제적 여유를 15.0%가 지적하였었다. '98년의 본 조사에서 복있는 여자의 조건으로 부부관계 원만(7.3%), 자녀성공(5.4%), 경제적 여유를(3.8%) 복있는 여자의 조건으로 응답했는데 과거에 비해 이러한 조건에 대해 응답자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로 응답여성들이 자녀문제보다는 여성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가정화목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혼하고 직업도 갖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85.3%에 이른다. 여자는 가정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1.7%이다. 1차조사에서는 전자의 비율이 62.0%이었고 후자의 응답은 33.7%이었다. 금번 응답자의 연령이 1차조사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농촌여성들이 여성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 살림이 기울었을 때 딸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공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고, 또한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할 때 거부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는 두가지의 질문을 통해 농촌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해 딸을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2.2%이었고 딸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84.2%로 높았다. 남편의 잠자리요구에 거부해본 일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120명이 응답을 하지

표 18. 여자는 꼭 결혼해야 하나?

구분	응답자	%
그렇다	134	36.4
결혼하는 편이 좋다	77	20.9
결혼안해도 상관없다	121	32.9
안하는 게 좋다	24	6.5
기타	5	1.4
무응답	7	1.9
합계	368	100.0

표 19. 어떤 여자가 복있는 여자?

구분	응답자	%
경제적인 여유	14	3.8
자녀성공	20	5.4
깊은 신앙	10	2.7
부부관계원만	27	7.3
세상에 이름남	3	0.8
가정이 화목	259	70.4
기타	27	7.3
무응답	8	2.2
합계	368	100.0

표 20. 여자들의 직업에 대해

구분	응답자	%
가정살림만하는 것이	43	11.7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314	85.3
기타	4	1.1
무응답	7	1.9
합계	368	100.0

않았다. 전체 응답여성중 한 번도 거절해본 적이 없다는 여성은 31명(8.4%)를 차지했고 경우에 따라 거절한다는 응답여성은 211명(57.3%)이었다. 남편이 잡자리를 같이 하자고 할 때 여성이 거의 마음대로 한다는 응답은 6명(1.6%)이다.

앞에서 여성들이 결혼하고 직업도 갖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85.3%이 이르는 것을 보았거니와 이번에는 응답자들이 농사일외에 다른 수입원을 원하는지 알아 보았다. 응답자중 1/3은 응답을 주지 않았고 약 1/3에 가까운 114명(31.0%)은 부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84명(22.8%)은 농사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46명(12.5%)이었다.

응답여성들의 자기 정체성을 묻은 결과는, 현재 응

답자들이 스스로를 단지 가정주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이고, 가정주부이면서 농사보조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여성이 24.2%이며, 가정주부이기는 하지만 농업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는 여성이 18.2%이다. 스스로를 전적으로 농업종사자라고 응답한 여성이 5명(1.4%) 있었다. 스스로를 직장여성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6명(7.1%)이다.

응답자들이 노후에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식들의 도움없이 따로 살고 싶다는 응답(51.9%)이 절반을 넘었다. 자식들의 봉양을 받고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은 28.3%이었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며 따로 살고 싶다는 응답은 16.3%이다. 단지 2명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표 21. 집안살림이 기울었을 때 딸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공부시키겠는가?**

구분	응답자	%
가능하다	45	12.2
안된다	310	84.2
무응답	13	3.5
합계	368	100.0

**표 22. 남편의 잡자리 요구에 대해**

구분	응답자	%
거절한적 없다	31	8.4
경우에 따라 거절	211	57.3
마음대로 거절	6	1.6
무응답	120	32.6
합계	368	100.0

**표 23. 자기 정체성**

구분	응답자	%
단지가정주부	145	39.4
가정주부+농사보조자	89	24.2
가정주부+농업종사자	67	18.2
전적으로 농업종사자	5	1.4
직장여성+가정주부	26	7.1
무응답	36	9.8
합계	368	100.0

표 24. 노후에는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는가

구분	응답자	%
자식들과 함께	104	28.3
도움받고 따로 삶	60	16.3
도움없이 따로 삶	191	51.9
국가의 도움	2	0.5
무응답	11	3.0
합계	368	100.0

표 25. 농촌에 필요한 시설(첫번째 지적)

구분	응답자	%
유치원	39	10.6
종일탁아소	29	7.9
사회교육 문화센터	115	31.3
헬스센터	4	1.1
노인정	46	12.5
장애인시설	3	0.8
직업훈련시설	26	7.1
병원	23	6.3
기타	32	8.7
무응답	51	13.9
합계	368	100.0

#### 4. 농촌사회에 필요한 시설

현재 농촌에 어떠한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 세가지를 지적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의 지적으로는 사회교육 문화센터가 가장 많은 31.3%의 응답자에 의해 지적되었고, 다음으로는 노인정(12.5%), 유치원(10.6%), 종일탁아소(7.9%)의 순으로 응답했다. 필요한 시설중 두 번째로 지적한 대담에는 직업훈련시설(8.7%)과 노인정(8.2%)이 많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로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에는 직업훈련시설을 지적한 응답자가 16명(4.3%)이었다.

###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간에 한국농촌여성의 역할과 태도변화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관지어 파악하

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1976년 8월에 첫 조사를 했던 8개마을에 대하여 1987년 4월에 2차조사를 실시했고, 금번 1998년 2월에 3차 후속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보고서는 1차와 3차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대상마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원이 가구를 개별방문하여 주로 가구주의 부인들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368명의 여성을 조사완료하였다.

조사대상마을 주변에는 공단이 조성되었고 대학캠퍼스까지 조성되어 있었으며 마을의 외관도 많이 변화되어 있었다. 가구의 동거가구원수는 작아졌고, 가족형태도 부모와 자녀만의 핵가족형태가 증가하고 가구내에 가구주의 형제등이 동거하는 비율은 크게 줄었다. 동거가구원중에 비농취업자수가 많아졌고 따라서 전업농 가구는 감소한 대신 겸업농 내지 비농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동거 가구원중에 비농부

문의 취업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치 도시생활같은 가구도 눈에 띄인다. 농업경영을 하는 가구의 경우에 1차 조사시보다 수도작 전문농가비율이 줄었다. 물론 2차 조사시에는 소규모의 축산을 하는 가구나 비닐하우스를 하는 가구가 많았었는데 3차 조사시에는 이들 가구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규모가 커졌다. 과수농가의 경우 이전에는 포도등이 주종이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성의 농사일은 여전하지만 수도작 농가의 경우 기계화 때문에 여성노동의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보여진다. 농업이 전문화되는데 비하여 여성들의 기계사용능력이나 경영능력이 신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적인 노동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된다.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지만 가옥의 신축, 가전제품 사용, 난방방법의 변화등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음이 눈에 띄인다. 특히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변화된 가정이 많고, 전화보급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농촌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겠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농협이나 마을회의 등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했다. 여성들의 사회적 태도가 현대화되고 있음이 여러 가지 질문항목의 응답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연구 결과 농촌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첫째, 농촌여성의 직업활동이 비농부문에서 증가하지만 저임금을 받는 비숙련직 일에 집중되고 있는데 전문직 내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훈련기회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반을 위해 비농부문의 취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할 일이다.

둘째,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여전히 농업기계 및 전문농업인으로서의 훈련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여성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농민으로서의 직업훈련차원에서 농사기술뿐 아니라 농협조합원 내지 작목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농촌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농촌주민

을 위한 사회교육 기회는 농촌내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가족 및 여성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마을 가까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여성들의 사회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오늘날 농촌마을에서 개발독재시대의 주민동원적인 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마을주민들이 민주적인 방법과 과정을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마을 발전사업이나 경제적 협동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여기에 여성들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적극 참여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인용문헌

- 1) 이효재, 김주숙, 1977, "농촌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30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2) 김주숙,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1987", 한국가족론, 도서출판 까치, 1990; 김주숙,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I」, 연구사, 1988.
- 3) 한국농촌경제원, 80년대 새로운 농정방향의 모색, 1980; 박진도, "8·15이후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 연구사, 1988.

### 참고문헌

1. 권영자외, 1987, 농촌 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농가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2. 김영란, 1989, '한국농촌여성연구를 위한 일 고찰', 여성연구(23), 한국여성개발원.
3.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4. 김재철, 1997, 농촌가족 유형의 변화와 전망-농촌마을 가족유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5. 김종숙, 정명채, 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

고서 268.

6. 김주숙, 1988,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I, 연구사.
7. 김주숙, 1990,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87,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까치.
8. 김주숙,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도서출판 한울.
9. 김주숙, 1996, 농촌여성 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념논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김주희, 1990, 농경기계화와 가족: 산기마을의 사례, 생활문화연구, 제4집, 성신여자대학교생활문화연구소.
11. 박찬숙, 1997, '97 대선 여성농민 정책 과제 토론회 자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농민연구소.
12. 변화순, 1993, 한국농촌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13. 이효재, 김주숙, 1977,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한국문화연구원논총(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4. 전정숙, 1995, 농업유형별 농촌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금릉군의 경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15.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88,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 연구사.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80년대 새로운 농정 방향의 모색.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제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